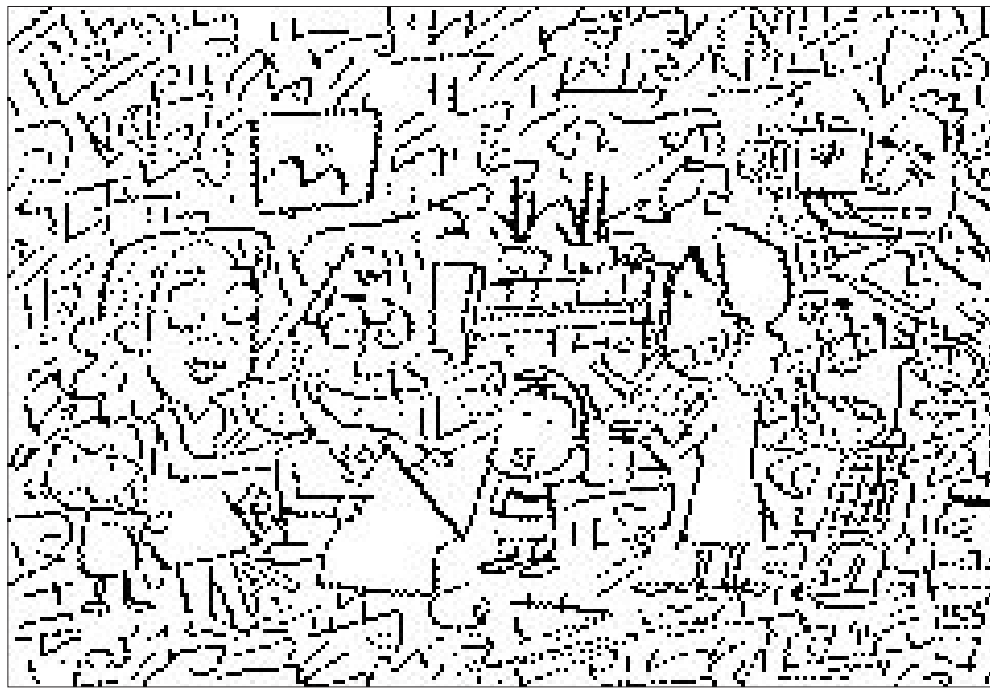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26>



찾아(보)세(요) 은행잎, 송사리, 새집, A자, 서둘룩, 다리미, 바늘, 음표, 종이배

가슴 두근거린 적

미자네 회사의 한 동료가 외국에 연수가 있는 남자친구와 나는 전화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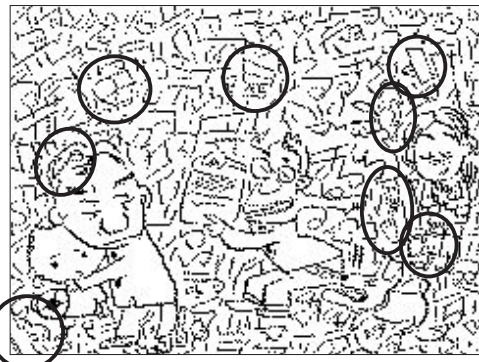
“남자친구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또 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이 같은 자랑을 들은 미자는 그날 집에 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에게 예고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자기가, 자기가 나 때문에 가슴 두근거린 적 있어?”

그러자 신랑이 대답했다.

“응, 있지. 담배 피우다가 걸렸을 때.”



지난주 정답

송사리, 열대어, 슬리퍼, 서둘룩, 음표, 병따개, 종이배, 우유팩, 다리미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서윤미(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오진아(완도군 완도읍 남성리)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2002 한·일 월드컵 개막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5월 31일 전세계의 축구 제전인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가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195개국이 참가한 2년여의 지역예선에서 생존한 32개팀은 서울 삼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 세네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FIFA컵을 향한 3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과 일본의 20개 도시에서 열린 2002월드컵은 21세기의 첫 월드컵이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이며, 월드컵 사상 최초로 2개국이 공동개최한 첫 대회이기도 했다. 2002월드컵은 이번으로 시작해 이번으로 끝이 난 대회이기도 하다.

1998년 대회 우승팀인 축구 강국 프랑스는 개막전에서 FIFA 랭킹 42위의 월드컵 처녀 출전팀 세네갈에게 0-1로 무릎을 꿇으며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이후 우루과이와 0-0으로 비긴 뒤, 덴마크에 0-2의 완패를 당하며 전 대회 우승국 프랑스는 일찌감치 귀국길에 올라야 했다. 프랑스를 꺾으며 돌풍을 예고했던 세네갈은 주술사를 대동한 채 8강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02월드컵의 최대 이변의 주인공은 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 축구대표팀이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첫 경기에서 2-0으로 승리하며 월드컵 대회 참가 48년 만에 첫 승을 기록한 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축구 강팀을 격침하면서 7전 3승 2무 2패라는 성적으로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허정민 감독은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4강행을 이뤄내 국민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삼바 축구’ 브라질은 이 대회의 우승으로 월드컵 5회 우승을 기록했으며, 준우승은 독일, 3위는 터키, 4위는 한국이 각각 차지하였다.

한국은 2002월드컵에서 4강이라는 기적같은 성적과 함께 국민의 열광적인 길거리 응원으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한국축구대표팀 서포터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시작된 길거리 응원은 전국을 붉게 물들이며 월드컵 최고의 볼거리로 떠오르기도 했다.

한편 최우수 선수에게 주어지는 골든볼과 최고의 골키퍼에게 주는 상인 아신상은 독일의 울리히 칸에게 돌아갔으며,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8골을 넣어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슈를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열광적인 길거리 응원으로 전세계 이목을 끌었던 붉은 악마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8일(음 4월 24일 戊辰)

36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들라. 48년생 사기꾼이 달려오니 주변을 경리하라. 60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72년생 여유있는 하루다. 84년생 중간인의 잘못으로 책임이 전가되니 주변사람을 살피라. 행운의 숫자: 03, 32

37년생 개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49년생 이성교제가 있다. 61년생 내 것 주고 속상할 수 있으니 명분있게 행하라. 73년생 중인이 나타나 결말을 내놓는다. 85년생 전화위복이 되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21, 39

38년생 신념을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50년생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과는 대 손해로 연결된다. 62년생 큰 틀은 자신에 있다. 74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행운의 숫자: 05, 45

39년생 발전이 약속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51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기나 자신은 우울하다. 63년생 부부사이에서 새로운 사랑이 싹튼다. 75년생 들뜬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08, 43

40년생 사방이 소란하니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52년생 매사에 조심하며 불만스럽게 꼬일 수 있으니 감수하라. 64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이 유리하다. 76년생 시비 분쟁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행운의 숫자: 17, 37

41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라. 53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지만 배움의 뜻이 온다. 65년생 옹호상박이니 그 결과는 반반이다. 77년생 회비가 잊갈리는 하루이니 삼색을 숙고하라. 행운의 숫자: 07, 43

42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54년생 짐작하게 서행하면 오히려 빠르리라. 66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자리한다. 78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유리하니 가려서 들으라. 행운의 숫자: 09, 39

43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면 발전이 있으리라. 55년생 모든 일이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67년생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중중하니 마음을 다스려라. 79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은 발발하나 급변을 조심하라. 행운의 숫자: 14,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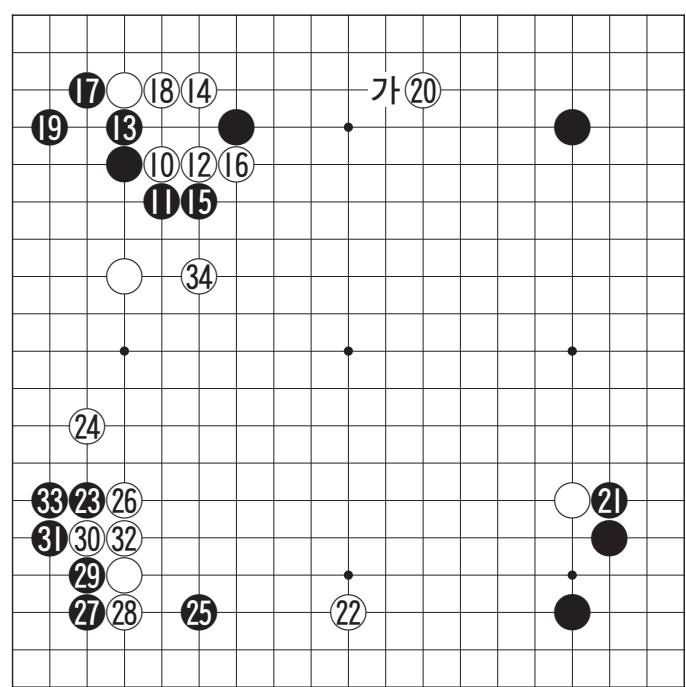
44년생 재사가 손조롭게 성사된다. 56년생 화려한 주변이 대고 발성시킨다. 68년생 증식하는 형상이고 주변이 잘되는 것 같으면서도 어수선하다. 80년생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12, 34

45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57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으로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69년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 81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행운의 숫자: 03, 41

46년생 가정과 배인의 불륜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격정된다. 58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70년생 비정한 고층이 죽어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82년생 부부사이에서 열광 불행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11, 29

47년생 부부사이에서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59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된다. 71년생 불륜사가 발생할 수다. 83년생 이해없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01, 40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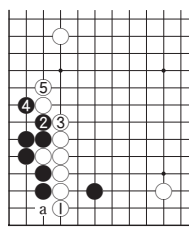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지역대회

변화무쌍, 요도(妖刀)정석

2보 (10~34)

白 허우석 5단 (북구청)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참고도>

정석은 변화가 많고 수순이 복잡하다. 이 정석 하나만 가지고도 한판의 책을 엮을 수 있을 정도이며 바둑에 입문하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중요한 정석이다.

혹 19까지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형태로 요도정석의 기본형이다. 다음

백 ⑩으로 붙여서 유명한 ‘요도정석’이 전개되고 있다. ‘요사스런 칼’이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정석은 변화가 많고 수순이 복잡하다. 이 정석 하나만 가지고도 한판의 책을 엮을 수 있을 정도이며 바둑에 입문하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하는 중요한 정석이다.

혹 19까지는 가장 많이 두어지는 형태로 요도정석의 기본형이다. 다음

백 20은 발은 빠르나 얽은 수로 보통은 ‘가’로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많이 벌렸기 때문에 이곳의 침입을 늘 의식해야 한다.

혹 23으로 걸쳐가면 흑 33까지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순으로 고수들의 실전에서 흔히 나오는 모양이다. 다음 백으로서 ‘참고도’의 1로 내려서는 것이 급한 곳이다. 흑이 ‘a’로 박아주면 물론 좋고 또 흑 2, 4로 선수를 잡더라도 백이 얼렁 두터워져 불안이 없다. 이곳을 두지 않고 백 34로 둔 것은 다분히 상편 침입을 응원한 수로 보이는데...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조훈현 하이원배 첫승 신고

조훈현 9단이 27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최원용 5단을 245수만에 불계로 누르고 첫승을 거두었다.

조훈현은 초반부터 중앙을 내주며 다소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중반에 좌상귀의 대마를 잡아내며 최원용으로 부터 백기를 받아냈다.

이로써 조훈현은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 전적도 16승 11패로 승리가 하나 추가됐다.

이번 대회 총 45국 중 16번째 대국을 마쳤으며 지난 대회 우승, 준우승자인 이세돌 9단, 조한승 9단이 3승으로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1169>

It's kind of a secret... 그것은 약간 비밀인데...

A: I heard Tom went to England. B: Who told you that? A: Mary? B: Oh, Don't tell anyone. It's kind of a secret

A: 탐이 영국에 갔다고 하던데. B: 누가 그렇게 말하든? A: 메리든가? B: 아이쿠,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게나. 그것은 비밀인데..

\* 존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하던데. = I heard John has a girl friend.

오하오우 니혼고 <1169>

何を讀(よ)んでるんですか?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A: 何を讀(よ)んでるんですか? B: 源氏物語(げんじものがたり)という日本の古典文學(こてんぶんがく)です. A: 昔(むかし)の言葉(ことば)だから難(くずか)しいでしょう. B: ええ, でもその讀(よ)むには, 古典(こてん)や歴史(れきし)まで勉強(べんきょう)しないとね.

A: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B: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일본의 고전문학입니다. A: 옛날 말이니가 어렵지요. B: 예에, 하지만 그 나라를 알기에는 고전이나 역사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 物語(ものがたり): 이야기 \* 知(し)るには: 알기에는 \* 言葉(ことば): 말

니하오 쑹구위 <146>

这里到海边远不远? 여기에서 해변까지 멀니까?

A: 这里到海边远不远? B: 不远, 过了那条街就到了. A: 谢谢. B: 不客气. A: 여가에서 해변까지 멀니까? B: 안 멀니다. 저 길을 건너면 바로 나옵니다. A: 감사합니다. B: 별말씀을요.

条 [tiáo] 한 갈래의 B: 街 [jiē] 길

한자 이야기 <786>

前倭後恭 (전거후공) 앞 전, 오만할 거, 뒤 후, 공손할 공

전거후공(前倭後恭)은 전에는 거만하다가 나중에는 공손하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는 것을 비유한다.

춘추전국시대에 종횡가(縱橫家)로 손꼽히는 소진(蘇秦)은 본래 낙양(洛陽)사람으로 귀국자(鬼谷子)에게 배우고, 수년 동안 제후들에게 유세(遊說)하러 다녔으나 모두 실패하고 어쩔 수 없이 낙향하였다. 그의 낙향(落鄉)에 아내와 형제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형수는 노골적으로 경멸하며 비웃었다.

뒤에 소진이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에 가서 제(齊), 초(楚), 위(魏), 한(韓) 등 6개 나라가 연합하여 막강한 진(秦)나라에 대항하자는 건의를 해서 결국 6국의 승상직을 겸하게 되었다. 어느 날 소진이 조나라에 가던 중 잠시 고향에 들렀는데, 푸대접하던 형제와 아내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형수는 눈에 띄게 공손하였다. 소진이 형수에게 “옛날에는 무척 거만했는데, 지금은 왜 이다지도 공손하십니까?”라고 묻자, 형수가 “이제는 서방님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소진이 한탄하길,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소진인데, 부귀할 때는 남들이 두려워하고 빈천할 때는 멸시하니, 부와 명예가 이렇게도 대단한거!”라고 하였다.(史記, 蘇秦列傳)